

# 대만영화 〈군중낙원(Paradise in Service)〉: ‘특약차실(特約茶室)’ 공간과 여성 재현의 정치\*

신동순\*\*

## <目 次>

1. 들어가는 말: 〈군중낙원〉의 영화적 의미
2. 특약차실의 역사 맥락과 〈군중낙원〉의 공간 재현의식
3. 특약차실의 위안부 여성들과 〈군중낙원〉의 여성 재현의식
4. 나오는 말: 〈군중낙원〉의 영화적 재현과 역사모순

## 1. 들어가는 말: 〈군중낙원〉의 영화적 의미

뉴청찌(鈕承澤/도제니우/유승택)감독의 〈군중낙원〉은 대만 2014년 9월 5일 상영 후 4일 동안 2800만타이비(台幣)<sup>1)</sup>를 벌어들였다. 엔딩 자막에는 허우샤오셴(侯孝賢) 감독 이름이 삽입되고 감독은 자신이 그의 제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허우샤오셴감독과 웨이더성(魏德聖)감독이 〈군중낙원〉 홍보영상도 찍었다고도 설명한다. 이 영화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허우샤오셴감독 영화 이후 대만 감독으로서 두 번째 개막작으로 선정되었던 작품이다. 개막작으로 선정되자 관객들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감독은 인터뷰에서 이 영화의 중국 대륙 상영을 희망하였

\* 이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15년도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됨(과제번호 1-1503-0110).

\*\*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부 부교수(shinmar@sm.ac.kr)

1) 中央社記者鄭景雯台北9日, “〈軍中樂園〉5日上映, 截至昨天為止, 全台票房總計有2863萬6140元, 劇中演員阮經天、王柏傑等, 中秋連假都在戲院跑透透。”

<http://www.cna.com.tw/news/amov/201409090345-1.aspx> 2017년 5월15일 대만야후 검색.

고 “순수하고 선하게 양안(兩岸) 역사를 직면하게 되었다”<sup>2)</sup>고 영화제작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하지만 영화의 흥행 성적은 그리 좋지 못했다. 중국의 소후(sohu) 영화 사이트는 “진먼(金門)의 위안부 이야기를 다룬 영화로 민감한 주제라서 중국에서는 상영되지 못했고, 홍콩에서 첫 날 40회 상영을 했는데 관객은 많지 않았다.(연인원으로는 한 자릿수) 4일 상영에 관객은 20만”<sup>3)</sup> 정도였다는 평가를 하였다. 진먼도에 설치되었던 국민당 군인들을 위한 위안소와 위안부 여성들을 주제로 삼고 있어서 민감한 정치적 문제로 워허져 대륙에서는 상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할까. 감독이 재현하는 군중낙원과 그 배경인 특약차실, 그 곳 여성들에 대한 역사적 인식과 영화적 재현 속 여성들 사이에서는 의식의 간극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영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부단히 회의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가 <군중낙원>을 개막작으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위원회는 이 영화의 무엇을 본 것일까. 이용관 집행위원장은 선정 이유를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주인공들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보는 이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허망하게 끝났지만 그렇게 바라는 감정을 에필로그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 감동적이었다. 해석의 자유도 있지 않았나 싶다”, “도제니우 감독을 볼 때, 허우샤오셴 감독과 만나는 착각이 들 때도 있다. 스승님, 아버지에게 배운 것도 있겠지만 대륙의 스타일을 과감하게 정형화하며, 화해했다는 것이 연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이 작품이 현실과 무관하지 않고, 우리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아시아의 화해와 치유,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sup>4)</sup> “개막작 ‘군중낙원’은 소재뿐만 아니라, 연출 스타일이 독특하고 우리 사회와 비슷한 소재로

2) 「鈕承澤釜山談《軍中樂園》衷心期待大陸能夠上映」 時光網

<http://news.mtime.com/2014/10/05/1532384.html> 2017년 5월 15일 검색.

3) “這部講述金門慰安婦故事的影片因為題材敏感而無緣內地，該片有強大的中台明星陣容，並有華誼的資金介入，整體成本高達2.5億台幣。但香港觀眾對這段歷史顯然不是太感興趣，影片首日安排40場放映，場均人次個位數，周末縮減至36場，場均人次25，四天累計20萬。” 「1006-1012香港票房 鈕承澤《軍中樂園》成炮灰

<http://yule.sohu.com/20141016/n405174099.shtml> 2017년 5월 15일 검색 sohu.com 사이트

4) 「이용관집행위원장 “군중낙원”개막작 선정이유는」, 『한국경제』 2014년 10월 4일,

<http://hei.hankyung.com/news/amp/201410022831q>

만들어서 대중성과 친근감, 웃음과 감동을 준다.”<sup>5)</sup> 영화 미학적으로 성공한 작품이라 평할 수도 있겠다. 다만 앞서 말한 의식의 간극이나 회의의식이 영화를 해석하는 내내 부단히 파열음을 내는 것을 보면 위안부 이야기로 읽고 있는 대중들과 위대한 여성들의 역사적 복무라는 감독의 영화 의식 사이에서 혼란과 파편이 발생된다. “특약차실”의 비극을 재현하는 곳곳에서 낙원의의식이 삽입되면서 위험한 간극이 발견되고 역사와 영화, 실재와 상징 사이에서 의식의 줄다리기가 진행된다.

감독은 인터뷰에서 이 영화가 이산의 이픔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공감할 만한 영화라고 설명하며, 중국과 대만의 분단, 남한과 북한 분단 의식을 동일시한다. 민족전쟁과 이산의 주제라는 측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특약차실”이라는 실제 일상은 “웃음과 감동”이나 환상적인 판타지로 치환할 수 있는 곳만은 아니다. 감독이나 부산국제영화제 위원회가 강조하는 민족전쟁과 이산 의식은 “특약차실”을 “낙원”화 혹은 판타지화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무기력증으로 빠져들게 된다. 특약차실과 <군중낙원>의 군중낙원 831의 공간 재현 사이에서는 어긋남과 미끄러짐이 발생한다.

또 하나 영화는 라오장(老張)을 통해 이산과 회귀 의식을 중심서사로 그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보다도 진먼도(金門島)에 배치된 군인들과 그들에게 “성을 제공하는” 여성들의 일상에 맞춰져 있다. 감독은 그녀들을 “성노동자(性工作者)”라고 부르면서 특약차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녀들의 존재를 회피해선 안 되는 역사로 설명한다. 역사적 존재들인 그녀들을 “여신(女神)”화하고 있다. 감독은 “시대의 핍박으로 육체(신체)를 제공”한 그녀들이 “역사의 비극이지만 위대하다”고 평하면서<sup>6)</sup> 이런 831부대의 일상을 “군중낙원”으로 그리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특약차실의 여성들과 <군중낙원>의 여성들 사이에서 충돌을 경험한다. 그 속에

5)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 “군중낙원”, 폐막작 “갱스터의 월급날” 선정」, 『한국다문화복지신문』 2014년 9월 3일

[http://newsnkorea.news153.co.kr/n\\_news/news/news\\_frame.html?no=288&search\\_string=&page](http://newsnkorea.news153.co.kr/n_news/news/news_frame.html?no=288&search_string=&page)

6) 감독 인터뷰 동영상, 2017년 3월 2일 검색.

[http://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sugsch&w=tot&DA=GIQ&sq=%EA%B5%B0%EC%A4%91%EB%82%99%EC%9B%90+%&o=5&sugo=5&q=%EA%B5%B0%EC%A4%91%EB%82%99%EC%9B%90](http://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sugsch&w=tot&DA=GIQ&sq=%EA%B5%B0%EC%A4%91%EB%82%99%EC%9B%90+%&o=5&sugo=5&q=%EA%B5%B0%EC%A4%91%EB%82%99%EC%9B%90)

서 우리는 감독이 보이는 문화적 정체성, 즉 대륙성과 가부장적인 남성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의 영화들 〈Love〉와 〈맹갑〉이 가지고 있던 대륙의 아들로서의 회귀 의식과 남성 중심적인 시선이 〈군중낙원〉의 라오장(老張)에게서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회의(懷疑) 지점들을 재고하면서 본 논문은 공간 재현의 문제와 831부대 여성들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논의에 들어가기 전 먼저 뉴청쩌감독 영화에 대한 연구 현황을 살펴보자. 그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많지 않다. 한국에서는 진성희의 논문 「탈역사 서술과 공간의 표상 — 영화 〈군중낙원〉을 중심으로」가 탈역사적 서술 양상과 공간표상의 의미를 독해하고 있다.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역사적 사건이나 담론을 재현하기보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고뇌와 아픔을 주목하는 서술적 특징을 분석한다. 군중낙원이 공창이라는 공간을 판타지화 하고 있고 국가권력에 억압당한 남성을 위로하는 공간으로 그려지면서 여성을 배제하고 있다고 본다. 영화가 역사 복원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남성 중심의 역사를 복원하고 있으며 “남성중심주의적 서술”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미 분석을 진행한다. “남성중심주의적 서술”의 한계는 그의 〈맹갑〉영화와도 연계된다. 신동순의 논문 「뉴청쩌감독의 영화 〈맹갑〉 — 대만의 정체성 서사」는 감독이 재현하는 대만의 정체성에 대한 분석으로 감독의 문화신분에서 출발해 그의 남성중심주의적 시선을 주목한다. 감독의 대만이자 외성인, 소수 민족인 만주족 신분을 주목하며 1980년대 후반 계엄령 해제 전후 대만청년들(아들들)과 부권의식의 발현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감독이 상상하는 아버지/국가에 대한 의식 속에 존재하는 아버지/부권/남성 시선이 식민과 만나는 지점을 분석한다. 중국에서는 류위취엔(劉玉娟)의 「비정한 역사의 당대(當代) 상상 — 영화 〈군중낙원〉 창작경향 분석」<sup>7)</sup> 논문이 있다. 논문은 주요하게 세 남녀의 사랑이야기와 그들의 애정비극을 대만의 역사 비극으로 분석해 온다. 이밖에 영미권이나 일본에서 연구한 〈군중낙원〉 논문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에 본 논문은 감독이 재현하는 특약차실 공간과 “성노동자”로 “여신”화하고 있는 감독의 여성의식을 생각해 보

7) 劉玉娟, 「悲情歷史的當代想象 — 電影〈軍中樂園〉創作分析」, 『電影評論』, 2016년14기.

고자 한다. 역사적 존재로서의 특약차실과 영화에서 그리고 있는 “군중낙원” 831 부대 공간을 재고해 보고 831부대 여성들의 성이 일상화되고 노동화되는 맥락과 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감독이 말하는 성노동자의 개념과 특약차실 혹은 군중낙원 군기원(軍妓院)의 공간과 여성들 사이에서 역사적 영화적 충돌이 일기 때문이다. 또한 <군중낙원>과 “역사 비극” 사이에서 영화 의식은 무엇인지 숙고해 보고자 한다.

## 2. 특약차실(特約茶室)의 역사맥락과 <군중낙원> 공간 재현의식

<군중낙원>은 1969년 전후 진먼도의 “특약차실(特約茶室)” 혹은 “군중낙원”으로 불렸던 군대 내 위안소(831 군기원/위안소) 즉 군창(軍娼)을 배경으로 한다. 감독은 그 시절 역사는 “진실이다. 허구나 과장, 흥미를 절제하였다. 그곳이 사실”<sup>8)</sup>이었음을 강조하며 특약차실의 역사적 사실에 주목한다. 회피하거나 망각되어서는 안 되는 대만의 현대 역사이자 역사 공간인 것이다. 대만 역사는 이 공간을 어떻게 기록해 왔는지 어떻게 대면하고 있는지. 특약차실은 1949년 대륙에서 넘어온 국민당 군대가 대륙과 1.8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진먼도에 자리를 잡고 대치하는 과정에서 군인들의 “생리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1950년 국방부가 군대 내에 설치하였다. 이곳은 공창제도와 법률에 근거하여 지어졌다고 한다. 대만의 공창제도는 18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 식민지시기 기원(妓院)제도가 수립되면서 공창령이 내렸고 정부는 “기녀증”을 발급하여 공식적으로 여성의 매춘을 허가하였다. 일제가 패망한 후 이런 공창제도는 폐지되었다가 국공 내전에서 패한 국민당 군대가 들어오면서 이를 다시 범제화하였고 이를 근거로 매춘 여성들을 관리하였다. 관련된 법률은 1956년 <대만성 각 현·시 기녀관리법臺灣省各縣市妓女辦法>으로 만들어졌고, 1960년 수정되었다. 1973년에는 <타이베이시 창기

8) 「鈕乘澤解讀<軍中樂園>: 爲父親聚焦外省老兵」, 감독인터뷰 영상, 2017년 3월 2일 검색.  
<http://tv.sohu.com/20141004/n404852833.shtml>

관리법台北市娼妓管理辦法)이 반포되었다.<sup>9)</sup> 특약차실은 1950년 52군정전(軍政戰) 주임 양루이(楊銳)의 건의로 국방부 총정치부 주임 장징궈(蔣經國)의 비준을 얻어, 1951년 진먼방위사령부(金門防衛司令部) 사령관 후롄(胡璉)에 의해 군창으로 전면 만들어졌고, 1990년 폐지되었다. 특약차실을 설치하기 위해 특별법 〈특약차실 설치와 관리방법特約茶室設置與管理辦法〉이 만들어졌으며, 1958년 발표한 〈타이중 군관 오락부 관리규칙台中軍官俱樂部管理規則〉에 의하면 “군관 생활을 조절하기 위해 그 심신의 건강을 촉진한다”는 것이다.<sup>10)</sup> 이곳의 공식명칭은 “진먼 방위사령부 군중 특약차실(金門防衛司令部軍中特約茶室)”로 기록되고 있다.

특약차실은 역사적으로 어떤 공간이었는가. 영화는 어떤 정치적 경관(landscape)을 생산해 내고 있는가? 공간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고, 이런 재현 과정에서 공간은 어떤 의미를 산포하고 있는가. 이를 통해 “군중낙원”의 신화, 그것이 역전되고 균열되는 지점을 찾아가 보자. 역사는 특약차실을 당시 여성들의 자발적인 지원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그녀들 중에는 인신 매매로 잡혀온 여성들도 상당수였다. 국가나 역사가 기술하는 것처럼 여성이 자발적으로 이주해 온 공간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사실 해당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폭력적인 공간인 것이다. 그녀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떠밀려 들어 온 공간이며 이 공간은 문화적 정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공간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이곳을 매춘소로 볼 것인지, 군위안소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다. 당시 특약차실을 관리했던 천창칭(陳長慶)<sup>11)</sup>은 『金門特約茶室』에서 그곳을 군기원(軍妓院)이나 군위안소로 부르는 것을 반대한다. 특약차실은 국가 직영이 아니고 민간에서 계약 방식으로 여성들을 모집해 왔고, 〈특약차실 설치 및 관리방법〉 법률에 의거하고 있으며 여성들이 그

9) 陳怡君, 「台灣娼妓有歷史, 法律規範隨時變」, 『台灣立報』, 2004년2월13일 참고.  
<http://www.lihpao.com/?action-viewnews-itemid-63548>

10) 張慧, 「歷史上真實的“軍中樂園”」, 『青年參考』,  
[http://qnck.cyol.com/html/2014-10/15/nw.D110000qnck\\_20141015\\_2-30.htm](http://qnck.cyol.com/html/2014-10/15/nw.D110000qnck_20141015_2-30.htm) 2017년 10월10일 검색.

11) 陳長慶, 『金門特約茶室』, 金門縣文化局, 2006년12월 참고.

녀들의 개별적인 사정에 의해 “스스로 지원”해 온 합법적 공간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이곳을 군기원이나 군위안소로 호명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곳은 국민당 군인들의 성적 욕구를 합법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공간으로 전시상태 국민당 군대와 군인들의 군대 내 낙원, 즉 “군중낙원”이었다고 설명한다. 또 당시 이곳을 “831”이라고도 했는데, 이 “831”은 원래 군대 내 통신 부호로, 당시 여성 생식기(性器官)의 전신부호를 8311이라고 했던 것에서 착안해 왔고, 831을 “군중낙원”의 암호로 사용했다고 전한다.<sup>12)</sup> 남성들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곳으로 831이라는 기호로 여성을 폄하해 불렀던 것이다. 남성의 욕구해결과 여성 생식기에 대한 폄하가 일상화되었던 공간인 것이다. 하지만 감독은 이것을 “시대로 인해 만들어졌고 시대로 인해 없어지다”, 시대의 부름으로 생겨난 역사적 사명의 공간이었다고 설명한다. 해당 여성들에 대한 찬사나 그 시대 역사 공간을 낙원으로 표상화하는 그의 영화의식이나 그 의미를 재고해 봐야 한다.

감독은 진먼도나 831 특약차실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가. 영화는 1969년 군함을 타고 진먼도로 들어오는 뤼바오타이(羅保台)와 병사들의 모습을 첫 장면으로 잡고 있다. 진먼도는 준전시상태의 불안정한 공간인 것이다. 감독은 그 불안전성과 불안함을 군복을 입은 군인들에게 덮어씌운다. 막 해변에 내리는 군인들이 갖는 심리적 불안과 긴장을 노출한다. 감독은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어떤 대우를 받는지 영화적 설명을 진행한다. 그들은 바로 육체 검열을 받는다. 몸에 문신 여부를 체크하고, 치아가 성한지 입안에 손을 넣어보기도 하고 가슴을 두드려 보기도 한다. 준전시공간인 진먼도의 군인들은 온전하고 깨끗한 신체를 요구받았다는 것이다. 상사의 치욕적인 행위에도 부동자세로 복종해야 한다. 트럭을 타고 해병 부대에 도착해서는 “부대 문을 들어서는 순간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개가 되어야 한다”는 상사의 말과 함께 이들은 부대 정문을 향해 엎드려 개처럼 네 발로 기어 들어가기로 강요받았다.

또 이곳은 한 달 중 15일은 대륙의 포격을 받는 곳이다. 마오쩌둥에 관한 선전 배라가 뿌려지고 회유방송이 들려온다. 수시 포격으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로 오줌

12) 董龍飛, 「溶解戰爭焦慮的安魂貼 — 揭秘台軍“特約茶室”」, 『檔案春秋』 2011년 04기, 25쪽.

을 지리는 공간이고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육체에 강압과 폭력이 합리화되었다고 한다. 영화는 어두운 막사 안에 물이 차서 세면도구가 떠다니고 눅눅하고 습해 인간이 살 수 없는 엄습한 공간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음습한 그곳에서 밤마다 발생하는 폭력을 재현한다. 화성(華興)에 대한 동료군인들의 음습한 폭력은 지속적이고 굴욕적이며 잔인하다. 감독은 이런 굴욕과 폭력을 당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그리고 불안과 긴장으로 오죽을 지리는 그런 군인들에게 831 특약차실과 여성들의 존재를 하나로 묶어낸다. 여성들의 활기와 이를 둘러싼 마을의 평화롭고 인정스런 풍경을 일상으로 치환해 온다. 특약차실과 그녀들의 비극과 아픔은 이렇게 군인들의 열악한 환경과 군대내 폭력에 의해 약화되고 합리화 되고 있다.

특약차실과 마을의 이런 일상풍경은 진먼도에 배속된 바오타이(保台)에 의해 서도 전시된다. 그는 “대만을 보위한다”는 자신의 이름과는 상치되게 해병임에도 수영을 할 줄 몰라 훈련 중에 물에 빠져 상사인 라오장(老張)에게 구조되기도 한다. 그는 해룡부대에 소속은 되었지만 해병 훈련을 감당하지 못해 831 특약차실로 이동해 간다. 10만 군인의 위안소인 831 특약차실로의 이동은 “대만을 보위하는” 그의 바오타이(保台)의 정체성이 “샤오바오(小寶)”로 호명되는 특약차실 관리인으로 전환되는 지점이다. 군민이 혼재되어 있는 시끄러운 저작거리를 지나 “삼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복무하는 특약차실服務三軍, 鼓舞士氣, 特約茶室”이라고 쓰여진 대문 앞에 놓여진다. 대만의 육해공군 사병들의 사기를 고무시키는 곳이 바로 이 공간임을 명기하고 있다. 특약차실 마당 안으로 들어서면 마당 한켠에 채소가 자라고 있고, 그 곳을 뒤뚱거리며 오가는 오리와 닭들, 마당 여기저기에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며 농담하며 웃고 떠드는 사병들의 활기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일상을 조성해낸다. 특약차실 방들에는 여성들의 화려한 속옷들, 니니(妮妮)의 방에서 들리는 기타소리, 화장대의 붉은 등빛, 꽃무늬 베개와 침구들, 벽 위에 붙여진 사진들, 방안으로 내리쬐는 햇볕의 한가로움, 침대 위 나풀거리는 붉은 천들, 활기찬 군인들로 웃음이 흘러나오는 곳, 안뜰에는 채소밭이 있고 닭들이 마당을 돌아다니는 곳으로 한가로움의 일상과 그 공간의 낙원성이 강화되고 있다. 특약차실 주변 마을에는 논밭에서 익어가는 곡식들, 길거리 만두가게의 김이



서린 만두들, 학교를 파하고 돌아가는 학생들,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는 라오장의 얼굴, 화싱(華興)과 바오타이가 나눠 마시는 음료수 환타, 변화가로 외출하는 그녀들에게 환호하는 병사들과 농민들의 활기찬 웃음, 화려한 빛깔의 원피스와 양산들, 미용실, 석양빛의 해변, 여인들의 즐거운 웃음소리, 한밤중의 반딧불 등 이 모든 것은 특약차실과 그 관련 공간들의 상처를 은폐하고 있다. 이것은 특약차실을 군중낙원으로 조작하고 환상화하면서 전쟁이데올로기나 군대 내 폭력성을 섹슈얼리티로 전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약차실의 실재가 아니라 영화가 만들어 내는 상징이며, 이 상징은 전쟁이데올로기와 섹슈얼리티를 결합해 특약차실의 존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사실 특약차실의 배치도를 보면 그곳이 영화에서 그리듯 그런 낙원의 공간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나란히 길게 이어진 비좁은 방들, 그 앞에는 늘 줄을 선 군인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15분으로 초과할 때에는 재 매표를 해야 한다. 작가 관런젠(管仁健)의 묘사에 의하면 “특약차실 양쪽 철문에는 군인들이 수비하고 있어서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가 없고”<sup>13)</sup>, 언제나 감시체제에 놓여 있다고 한다. 감독이 재현하는 특약차실은 관런젠이 기술하는 특약차실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영화는 831 특약차실을 군대 내 낙원으로 불러오고 있다. 이곳은 이렇듯 여성과 남성 사이에서의 성 권력과 국민당의 전쟁의식이 착종되는 공간이다. 이곳은 “반공과 광복(反共收復)”을 위해 “전장의 최전선(戰事的最前線)”에 온 남성 병사들과 이들을 위해 “성 제공(性提供)”을 하는 여성들만이 존재한다. 남성병사와 위안부 여성 사이에서 성 권력이 행사되고 있고, 군인과 군인 사이에서 전쟁과 군대의 폭력 이데올로기가 일상화되고 있다. 전쟁이나 군대의 긴장감이나 이데올로기는 831이라는 특약차실에서 위안부 여성의 위안을 받으면서 일상의 평화를 가장한다. 여성의 성이 전쟁이데올로기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831 특약차실 안에서 의식화되고 내면화되고 있다. 감독은 영화를 통해 준전시상태였던 1969년 대만의 전쟁이데올로기나 군대문화를 재현하고 싶

13) 管仁健, 「強逼幼女賣淫的國軍特約茶室」, 『你不知道的台灣: 國軍故事』, 文經出版社, 2011년.  
<http://mypaper.pchome.com.tw/kuan0416/post/1320612663> 2017년 5월 30일 검색.

있을지도 모른다. 다만 특약차실의 존재나 특약차실 여성들의 역사적 의미를 주체화하는데 특약차실이나 특약차실 위안부 여성의 재현에는 국가의식이나 남성의식이 보다 더 우위에서 덮어 씌어져 있다고 본다. 특약차실의 실재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그 안의 여성 위안부들의 모습이 영화의 재현처럼 그런 모습이었는지 영화의 재현과 역사의 실재 사이에는 괴리와 회의가 존재하게 된다. 영화 속 특약차실 군중낙원 공간은 정치성과 양가성을 드러낸다.

### 3. 특약차실의 위안부 여성들과 〈군중낙원〉의 여성 재현의식

영화가 상영되고 대만에서는 이 여성들을 매춘녀로 볼 것인지 혹은 일제강점기 위안부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 성노동자로 볼 것인지 첨예한 의견들이 불거져 나왔다. 천창청은 그녀들을 기녀 즉 매춘여성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관련젠은 강력한 항의를 진행하면서 당시 특약차실 여성들은 군위안부였다고 서술한다. 감독은 그녀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했고, 청춘을 팔아서 몸을 팔았지만 군인들에게 신체의 기쁨을 가져다 준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sup>14)</sup> 했다. 그는 그녀들을 역사의 비극이었지만 위대하다고 평하면서 “성노동자(性工作者)”로 호명해 왔다. 이는 그녀들이 자발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감독의 의식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성매매하는 여성들을 성노동자로 보는 문제에 대해 한편 성노예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이를 비판하며 반박한다. 성노예제로 보는 편에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강제성이 전혀 수반하지 않는다고 해도 성매매 그 자체가 성매매 종사자의 인격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성매매는 곧 인권침해라고 본다.” 또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보는 편에서는 “성매매 종사자의 기본적 인권은 오히려 이들을 노동자로 간주하여 취업의 자유와 거주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지켜진다고 생각한

14) 2014년 제 19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 〈군중낙원〉의 감독 뉴청저와 배우 천이한의 기자회견 중에서 / 진성희, 「탈역사 서술과 공간의 표상 — 영화 〈군중낙원〉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43집, 2016년6월, 419쪽 참조.

다.”<sup>15)</sup> 성매매를 노동으로 본다면 “성매매 종사자가 될 자유와 성매매 종사를 그만둘 자유”<sup>16)</sup>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논의들을 근거해 볼 때 특약차실의 여성들을 감독이 설명하는 것처럼 “성노동자”로 볼 수 있을까 자문해봐야 한다. 그녀들은 성노동자로 읽히기에는 성매매 종사자가 될 자유나 그만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역사는 그녀들을 “반공과 광복을 위해” 전장의 최전선에 있는 군인들에게 성을 제공하던 “스잉성(侍應生/급사)”으로 기록하고 있다.<sup>17)</sup>

천창칭이 진먼 문화국 기금으로 출판한 『진먼 특약차실金門特約茶室』 기록에 의하면 여성 한명 당 1,300위안 모집비를 주었고 새로 들어온 여성에게 따로 정착비로 10,000위안을 무이자 대리해 줬으며, 이후 접대비를 군대와 3:7로 분장했다고 한다. 여성 나이는 30세까지이고, 접대 횟수가 이상적이지 않거나 서비스 태도가 좋지 않으면 해고되었다. 구체적인 모집 조건은 18세 이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나 장애인, 20세 미만 보호자(부모) 동의가 없는 여성, 성병에 걸린 여성, 전과자나 불량기록이 있는 여성, 금방부(金防部) 송환을 받지 못한 여성은 지원을 금하였다.<sup>18)</sup> 하지만 이런 모집이나 해고의 과정이나 성매매 여성들의 자발적 참여리는 천창칭의 기록과 서사의식에 대해 관련젠은 그의 저서 『당신이 모르는 대만: 국군이야기你不知道的台灣: 國軍故事』<sup>19)</sup>에서 장제스·장징궈(蔣經國)의 국민당 정부의 군기(軍妓)설치가 일본 공창제도에서 왔고 위안소와 위안부 문제와도 연계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대만이 특약차실의 문제를 “민간(民間)”의 문제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일본 우파들이 위안부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동일하다고 비판한다. 천창칭은 “군기(軍妓) 모두가 자원해 왔고 진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일본이 강제 징집한 위안부와는 다르다. 이 둘을 같

15) 다자키 히데아키 엮음, 김경자 역, 『노동하는 섹슈얼리티』, 도서출판 삼인, 2006년, 7쪽.

16) 다자키 히데아키 엮음, 김경자 역, 『노동하는 섹슈얼리티』, 도서출판 삼인, 2006년, 14쪽.

17) 陳長慶, 『金門特約茶室』, 金門縣文化局, 2006년12월 참고.

18) 百度百科 검색

<http://baike.baidu.com/item/%E7%89%B9%E7%BA%A6%E8%8C%B6%E5%AE%A4/2325053?fr=aladdin> 2017년 5월10일 검색

19) 管仁健, 『你不知道的台灣: 國軍故事』, 文經出版社, 2011年.

<http://ishare.iask.sina.com.cn/f/25039232.html> 2017년 10월 10일 검색.

이 논해서는 안 되고, 잘못된 관념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군기의 이미지를 부단히 부정적으로 묘사한다. 심지어는 죄를 지어 진면으로 유배되어 와서 매춘을 한 사람들이라고 군기를 날조하기도 한다. 사실은 모두가 거짓된 소문<sup>20)</sup>이라고 일축한다. 특약차실 여성들을 일제 위안부 문제와 같이 다루는 것에 대해 위안부가 강제적인 것이었다면 특약차실 여성들은 자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대만작가 리아오(李敖)는 특약차실은 “황당한(荒唐)” 역사였다고 주장하면서, 여성들은 끌려 왔거나 수감자들이었고 손님 받는 임무를 완성하지 못할 경우 폭력을 당했다고 증언하였다.<sup>21)</sup>

사실 군기나 군위안부로 살았던 그녀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일제 위안부의 모습과 겹쳐진다. 그녀들은 모두 전쟁과 식민이데올로기에 희생당한 여성들로 성적 착취나 강압과 폭력이라는 지점에서 중첩되어진다. 국민당 정부와 일제의 전쟁이데올로기 의식은 특약차실 여성과 일제 위안부의 성적 착취나 억압을 국가나 전쟁을 위한 “헌신(獻身)”으로 합리화하고 있다. 특약차실 전람관에는 아직도 “대장부는 전쟁터에서 무기를 연마하며 사력을 다하고, 여자들은 가정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大丈夫效命沙場磨長槍, 小女子獻身家國敞篷門)”는 대련이 걸려 있고 황축에는 “몸을 바쳐 나라를 구한다(捨身報國)”는 것이 있다.<sup>22)</sup> 전쟁에서 병사들에게 몸을 바쳐 일익을 담당한 영웅적 주체라고 하면서 신화화하고 있는 것이며 그 역사를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젠은 천창칭의 책이 기술하는 특약차실 공간과 그곳 여성들에 대한 역사적 객관성과 진실성 여부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천창칭이 대만에서의 전쟁 위안부 혹은 군기의 문제를 “민간<sup>23)</sup>”에게 책임지우고 있고

20) 軍妓全是自願到金門執業，與二次世界大戰日本強徵慰安婦不同，兩者不能相提並論，外界長久以來有著錯誤觀念，不斷醜化軍妓形象，甚至誣指軍妓是因犯罪被流放到金門賣身，其實都是子虛烏有的傳言。”

<http://mypaper.pchome.com.tw/kuan0416/post/1320612663> 2017년 5월30일 검색.

21) 張慧, 「歷史上真實的“軍中樂園”」, 『青年參考』,

[http://qnck.cyol.com/html/2014-10/15/nw.D110000qnck\\_20141015\\_2-30.htm](http://qnck.cyol.com/html/2014-10/15/nw.D110000qnck_20141015_2-30.htm) 10월 10일 검색.

22) 張慧, 「歷史上真實的“軍中樂園”」, 『青年參考』,

[http://qnck.cyol.com/html/2014-10/15/nw.D110000qnck\\_20141015\\_2-30.htm](http://qnck.cyol.com/html/2014-10/15/nw.D110000qnck_20141015_2-30.htm) 10월 10일 검색.

23) 管仁健, 「強逼幼女賣淫的國軍特約茶室」, 『你不知道的台灣 — 國軍故事』, 文經出版社, 2011년.

“민간”에 기대어 조작하고 있으며 이런 의식은 위험하고 불순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쟁 이데올로기 의식이 깊이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사실 당시 언론매체의 보도를 보면 특약차실의 미성년 여성이나 여성 수감들에게 있어서는 자발이기보다 기만이었고 감형이라는 선택을 강요받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1960년 9월 17일자『신문천지(新聞天地)』는 17세의 여고생이 부친 사망후 모친이 병이 들고 동생들은 어린 상황에서 자퇴하고 불법 매춘을 하다가 잡혀서 진면으로 이관되었다고 보도했다. 같은 해 12월 25일자『연합신문(聯合報)』는 부친이 15세 딸을 저당 잡혀 도박을 해서 13,500위안을 잃어서 그녀를 특약차실로 보냈다는 이야기를 실었다. 1965년 7월 27일『연합신문(聯合報)』은 19세 여자 쟁X잉(曾X英)이 특약차실에서 간혀 일을 하다 태풍이 올 때 도망 나와서 경찰서에 보호 요청을 한 사건을 보도했다. 그녀는 16세에 모친이 사망하고 나서 부친이 그녀를 40여세의 남자에게 주었고 그 남자와는 작년에 이혼했는데 부친이 그녀를 타이중(台中)에 놀러 가자고 속여 데리고 가서는 2만 위안에 그녀를 타이중 특약차실에 팔았다고 한다.<sup>24)</sup> 같은 신문 3월 24일자 보도는 14세의 왕X메이(王X妹)모친이 화롄에 사는 어떤 남자에게 속아서 1월 23일에 딸을 징메이전(景美鎮)의 특약차실에 팔아 8천위안을 받았고 소개자는 4천위안을 받았으며 그녀에게 25일부터 손님을 받으라고 한 것을 거부하다가 구타를 당했다는 보도를 했다. 또 1966년 3월30일자 신문에서는 가오슝(高雄)현에서 발생한 미성년 16명에 대한 인신매매 사건을 보도했다.<sup>25)</sup> 관롄젠은 또 1987년 진면에서 발생한 16세 강씨 미성년 매음사건을 기술하면서 천창칭의『진면 특약차실』에서 다루는 831 특약차실의 위선적 기록을 비판하고 있다.

당시 특약차실 여성들의 환경은 열악했다. 그녀들의 인권은 보장받지도 못했

---

<http://mypaper.pchome.com.tw/kuan0416/post/1320612663> 2017년 5월 30일 검색.  
24) “軍中樂園” 維基百科 검색

<https://zh.wikipedia.org/zh-tw/%E8%BB%8D%E4%B8%AD%E6%A8%82%E5%9C%92> 10월10일 검색.

25) 管仁健, 「強逼幼女賣淫的國軍特約茶室」, 『你不知道的台灣 — 國軍故事』, 文經出版社, 2011년.  
<http://mypaper.pchome.com.tw/kuan0416/post/1320612663> 2017년 5월 30일 검색.  
<http://ishare.iask.sina.com.cn/f/25039232.html> 2017년 10월 10일 검색.

다. 관련젠은 그녀들이 폭력적인 환경에 놓여 있었고 다음과 같은 반인권적인 학대와 심신상의 억압을 받았다고 기록한다. “첫 번째는 생리가 오면 하루만 쉬게 하고 다음날부터는 면을 자궁 속에 넣게 하고는 손님을 계속 받게 했다. 두 번째는 그녀들에게 지급한 비용은 극소수 한번에 1위안 정도 지급해줬고 대부분은 거의 돈을 받지 못했다. 세 번째는 14세 미만에 발육이 되지 않은 여성은 매 주 호르몬제를 6대 맞았다. 네 번째는 차실 안에 철문이 두 개 있는데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그녀들에게는 활동의 자유가 없었다. 다섯 번째는 처녀가 손님을 받을 때에는 책임자를 보내 문 밖에서 감시하면서 울거나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sup>26)</sup> 이런 상황에 처한 특약차실 여성들을 성노동자로 호명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녀들에게는 성매매를 할 자유나 그만둘 자유가 없었다. 생리를 해도 손님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호르몬제를 맞아야 하는 또 감시를 받았던 상황을 보면 그녀들에게는 신체적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 정부 기록은 그녀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들어왔거나 감형을 받기 위해 들어왔다고 하지만 실제 당시 여성들을 인터뷰하고 기록한 관련젠의 기록을 보면 자발성보다는 강제성이 우선했고 감형이라는 폭력적 선택을 강요받았음을 알 수 있다.

감독은 그 여성들을 시대의 비극이지만 위대하다고 말한다. 전쟁의 시대, 가정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에게 성을 제공하는 것은 위대하다고 말하는 감독의 의식은 위험하다. 이런 시선에 의해 재현되는 특약차실과 그 곳 여성들에게는 모호함이 존재한다. 감독은 그녀들을 성노동자, 성매매여성으로 해석했는데, 성노동자로 보려면 그것의 존재 조건인 인권이나 성적 자율권, 노동개념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관련젠이 기록하는 특약차실 여성들과 비교해 영화가 이미지화하고 있는 군중낙원 여성들의 모습을 보면 영화가 그 시대 폭력적 역사에 대해

26) “即遭受毒打，同時還要遭受下列不人道的虐待與摧殘：(一)她們經期來時只准休息一天，第二天起即被迫用棉花塞進子宮裡繼續接客。(二)她們所賺皮肉錢，除少數給予一次一元零用外，大部份是分文不給。(三)年齡未滿十四歲，發育不全者每星期打荷爾蒙針劑六針。(四)茶室裡有兩道鐵門，派有專人把守，她們沒有自由活動的權利。(五)處女接客時，派有保鑣在房門外監視，不准哭叫，不准反抗”  
管仁健，「強逼幼女賣淫的國軍特約茶室」，『你不知道的台灣－國軍故事』，文經出版社，2011年。  
<http://mypaper.pchome.com.tw/kuan0416/post/1320612663> 2017년 5월 30일 검색。  
<http://ishare.iask.sina.com.cn/f/25039232.html> 2017년 10월 10일 검색。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군중낙원” 즉 특약차실을 낙원화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인권이나 성적 자율권, 노동개념은 미화되었고 그 비극성을 경감시켰다. 영화는 역사의 비극을 낙원의 일상으로 전치하면서 그녀들의 비극적 일상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약차실에서 그녀들은 번호로 호명되었다. 여성들은 이름 없는 얼굴 사진에 번호가 매겨져 벽 위에 전시되었고 선택되어졌다. 영화에서도 그녀들은 번호로 공식화되었다. 8번은 아자오(阿嬌)와 7번 니니(妮妮), 5번 웨타오(月桃), 2번 아사(阿霞), 16번 사사(莎莎) 들이다. 하지만 영화는 그녀들의 이름을 수시로 호명해 온다. 이름으로 불러옴으로 특약차실을 군중낙원으로 이름 짓게 하는 것이다. 사실 군중낙원에서 아자오는 친아버지와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사사는 위안소에서 원하지 않는 관계를 강요받으며 성폭행을 당했다. 니니는 폭력 남편을 살해하고 수감자 감형을 위해 군중낙원으로 왔다. 아사는 니니처럼 수감자로 군중낙원으로 왔고 성병에 걸려 병원에 갈 때에도 수갑을 찬 채로 신체는 구속되었다. 탈출을 시도했었고 다시 붙잡혀 왔다고 한다. 웨타오는 임신을 한 상태로 병사들을 받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출산까지 하게 된다. 군중낙원에서 그녀들의 신체는 병사들을 위한 몸으로 봉인되었고 그 안에서는 모두 화려한 색깔의 속옷을 입고 반라로 병사들에게 전시되었다. 그녀들의 신체는 때로는 방 안에서 벌어지는 남녀관계를 엿보는 병사들의 시선에 의해 관음의 대상이 되었다. 영화는 그녀들이 하루에 10장의 표를 기본으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재현한다. 10장을 한 병사가 살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1인 1표라 하면 10인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작가 리아오는 실제 당시 그녀들은 하루에 3,40회를 기본으로 했고 50회가 넘는 것을 장려했다고 기록한다.<sup>27)</sup> 하루 15분씩 30회는 7시간이 넘는 양이다. 이는 한 여성으로서 또한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해 내기 어려운 극도의 상황으로 반인권적인 상태에 처해져 있었음을 증명한다. 하지만 영화는 그녀들이 10장의 표를 기본으로 받는 것으로, 또 그녀들에게 화려한 속옷을 입힘으로서, 군민 남성들의 시선과 환호성

27) 「李敖: “軍中樂園”營妓真相探秘」.

<https://www.douban.com/group/topic/34374677/> 2017년10월10일 검색.

을 한 몸에 받는 것으로, 가끔씩 주어지는 휴일의 즐거움으로 특약차실 여성들의 역사를 미화시키고 있다.

영화가 진행되는 군중낙원 여성들에 대한 재현은 역사 속 특약차실 여성이 받았던 억압과 폭력, 고통과 아픔을 희석화한다. 니니는 그녀를 관리하는 샤오바오와 낭만적인 관계(한밤중에 함께 기타를 치고 노래 부르는 관계, 반딧불을 보러 군중낙원 밖으로 가는 사이)에 놓여 있고, 아자오에게는 라오장이 있어 병사들로부터 특별대우를 받고 보석과 현금을 획득하고 비극적으로 끝났지만 라오장의 사랑과 결혼의 대상이기도 하다. 사사는 그녀를 사랑하는 화싱이 있어 특약차실을 탈출해 나가고, 니니는 “위대한 장 총통의 석방령”에 의해 군중낙원을 떠나고, 사사는 화싱과 특약차실을 탈출해 야밤에 바다를 건너 대륙으로 가는 것으로, 아자오는 라오장에게 살해당하면서 특약차실로부터 벗어난다. 영화는 특약차실의 폭력과 비극의 역사를 희석화하고 있다. 또 그것으로부터의 해방이나 탈주, 여성 신체의 봉인과 전시는 모두 국가제도와 남성에 의해 해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흑백 사진 속에서 사사는 화싱(華興)과 함께 중국 천안문 앞에서 웃고 있다. 화싱은 그의 이름처럼 중화의 부흥(혹은 화싱 자신의 자유)을 꿈꾸며 대륙으로 귀속했다. 니니(妮妮)는 샤오바오와 니니의 아들과 함께 가족사진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으며, 라오장은 아자오와 결혼해 아이를 낳고 만두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녀들을 흑백사진으로 프레임화하면서 재구하고 있다. 흑백 사진 속 인물들의 행복한 웃음은 주어진 것이다. 군중낙원에서 제거되거나 별리되었던 여성들의 탈주나 해방은 비주체적이다. 영화는 특약차실의 역사나 그 곳 여성들에 대한 재현을 국가 중심주의적이고 남성중심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4. 나오는 말: 〈군중낙원〉의 영화적 재현과 역사 모순

영화는 군중낙원의 공간과 여성의 재현을 통해 특약차실의 역사를 재구하면서 재맥락화시키고 있다. 영화는 특약차실의 공간과 여성들을 군중낙원으로 불러오



면서 전쟁과 군대의 폭력을 그리고 여성에게 가하는 국가와 남성 이데올로기의 억압을 군중낙원의 낙원성으로 치환하려고 한다. 특약차실에 대한 서로 다른 기술을 보면서 영화가 재현하는 군중낙원의 공간이 한편으로는 특약차실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기제로 작동되고 있고, 그곳 여성들의 존재가 감독이 말하는 성노동자가 아닌 전쟁상태 군인들을 위안하는 위안부였다는 것에 동의하게 된다. 영화가 보여주는 사사의 성폭행이나 몰화되어 가는 아자오가 라오장에게 살해를 당하는 것이 영화가 재현하는 군중낙원에 균열을 내는 지점이기도 하지만 그녀들을 구원하는 화성이나 라오장의 비극적 사랑, 샤오바오가 떠난 후의 후임자의 동일한 일상, 남겨진 여성들의 일상으로의 회귀는 군중낙원 여성들의 탈주 이면에 국가와 남성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지속되어진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영화는 현실이라는 컬러영화 속에서는 사사의 도피 성공여부를 알려주지 않는다. 그저 흑백사진 속에서 그녀가 대륙으로 건너가 천안문 앞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고, 너니는 아들과 함께 미소를 짓고 있고, 라오장과 결혼해 아이를 낳은 아자오의 행복하게 웃는 것을 배치함으로써 군중낙원 여성들의 행복을 구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의 특약차실은 인간의 존중이나 존엄이 존재하진 않는다. 웨타오(月桃)의 육체가 병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공간인 것처럼, 그곳은 육화된 남성들의 관음증과 15분에 한명씩 들고 나면서 채워지고 있는 남성 중심적 공간의식, 여성들의 피로감과 자멸감이 쌓여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영화는 그런 특약차실을 군대 내 '낙원'인 군중낙원으로 치환해 오고 있다.

감독은 영화 엔딩 자막<sup>28)</sup>에 “1951년 군부측은 수십만 군인의 생리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군 내에 특약차실을 만들었고 또 군중낙원 혹은 831이라고 불렀다. 1990년 양안관계가 좋아지면서 대만 병력이 감축되었고 입법원(立法院)이 여성 인권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면서 국방부가 특약차실 철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한다. “여성 인권을 위반한 것”임을 공인한 것이다. 특약차실의 역사를 따라가 보면 그

28) “一九五一年軍方爲解決數十萬大軍的生理需求，成立軍中特約茶室，又稱軍中樂園或八三么。一九九零年，兩岸關係和暖，台灣兵力精簡，立法院質詢違反婦女人權，國防部下令裁撤特約茶室。” “因時代而生，因時代而止，軍中樂園走入歷史”，“獻給我外公和父親以及漂蕩在命運之海的每一個你我”，“謝謝侯孝賢”

곳이 국민당 군인의 위안소였고 그곳 여성들은 '위안부'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일제 식민시대 식민지 여성을 기만해 '위안부'로 강제한 것과 다름 아니라고 본다. 국가나 주류역사는 그녀들이 자발적이었다고 하지만 한 인간인 여성에게 있어 그것이 진정한 자발성이었는지 강력한 비판의식을 맞대어 본다. 당시 보도를 보면 그녀들이 반 강제적으로 혹은 인신매매되어서, 혹은 감형을 위해 어쩔 수없이 흘러 들어왔고 15분마다 접객을 해야 하는 처지였다고 하는데, 감독이 말하는 성노동자라는 호명은 특약차실 '위안부' 나아가 일제시기 대만 '위안부'의 역사를 그리고 그 역사를 은닉하거나 정치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라고 본다.

#### 〈參考文獻〉

- 다자키 히데아키 역음, 김정자 역, 『노동하는 섹슈얼리티』, 도서출판 삼인, 2006년.  
 진성희, 「탈역사 서술과 공간의 표상 — 영화 〈군중낙원〉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 43집, 2016년6월.  
 陳長慶, 『金門特約茶室』, 金門縣文化局, 2006.12.  
 劉玉娟, 「悲情歷史的當代想象 — 電影〈軍中樂園〉創作分析」, 『電影評價』, 2016년14기  
 薑龍飛, 「溶解戰爭焦慮的安魂貼 — 揭秘台軍“特約茶室”」, 『檔案春秋』, 2011년 04기.  
 李廣玉, 「《軍中樂園》中的女性形象研究」, 『戲劇之家』, 2017년16기.  
 吳學良, 「台灣“軍妓院”內幕」, 『海內與海外』, 1995년 Z1기.  
 「이용관 집행위원장 “군중낙원” 개막작 선정 이유는」, 『한국경제』 2014년 10월 4일,  
<http://hei.hankyung.com/news/amp/201410022831q>  
 감독 인터뷰 동영상, 2017년 3월 2일 검색.  
[http://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sugsch&w=tot&DA=GIQ&sq=%EA%B5%B0%EC%A4%91%EB%82%99%EC%9B%90+%&o=5&sugo=5&q=%EA%B5%B0%EC%A4%91%EB%82%99%EC%9B%90](http://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sugsch&w=tot&DA=GIQ&sq=%EA%B5%B0%EC%A4%91%EB%82%99%EC%9B%90+%&o=5&sugo=5&q=%EA%B5%B0%EC%A4%91%EB%82%99%EC%9B%90)  
 管仁健, 「強逼幼女賣淫的國軍特約茶室」, 『你不知道的台灣: 國軍故事』, 文經出版社, 2011년.  
<http://mypaper.pchome.com.tw/kuan0416/post/1320612663> 2017년 5월 30일 검색.  
 「鈕承澤釜山談《軍中樂園》“衷心期待大陸能夠上映”」 時光網  
<http://www.cna.com.tw/news/amov/201409090345-1.aspx> 2017년 5월15

일 대만야후 검색.

「1006-1012香港票房 鈕承澤《軍中樂園》成炮灰」,

<http://yule.sohu.com/20141016/n405174099.shtml> 2017년 5월 15일 검색.

「鈕承澤解讀《軍中樂園》: 爲父親聚焦外省老兵」, 감독인터뷰 영상

<http://tv.sohu.com/20141004/n404852833.shtml> 2017년 3월 2일 검색.

陳怡君, 「台灣娼妓有歷史,法律規範隨時變」, 『台灣立報』 2004년2월13일자.

<http://www.lihpao.com/?action-viewnews-itemid-63548>

張慧, 「歷史上真實的“軍中樂園”」, 『青年參考』,

[http://qnc.kyol.com/html/2014-10/15/nw.D110000qnc\\_20141015\\_2-30.htm](http://qnc.kyol.com/html/2014-10/15/nw.D110000qnc_20141015_2-30.htm)

2017년 10월10일 검색.

「李敖: “軍中樂園”營妓真相探秘」,

<https://www.douban.com/group/topic/34374677/> 2017년 10월10일 검색.

「Paradise in Service' is Doze Niu's most personal film」,

<http://www.insing.com/feature/paradise-in-service-is-doze-niu-s-most-personal-film/id-3a5b3101/>

2017년 3월10일 검색.

<Abstract>

Taiwanese Film “Paradise in service”: The Space of “Special Tea House”  
and the Politics of Women Reproduction

Shin, Dong-Soon

The film rebuilds the historical consciousness through the expression of the military paradise and women, and re-interweaves the history of “Special Tea House”. The film reproduces the space and women of “Special Tea House”. War and violence replaced by Paradise in Service. The film shows that women here are liberated from the ideology of state and masculinity. These emancipation is not real liberation, but fake liberation. People portray the history of women in ‘Special

Tea House', but differ from each other. Some think they came voluntarily, and some think that the system and ideology have forced them, suppressed them and cheated them. The film rationalizes and legitimates these spaces and women through the reproduction of space and women. Although women's violence and military violence are shown, A central figure for the dissolution of this violence is the male and the State system.

Ending subtitles are as follows. "In 1951, the army set up a 'special tea house' in the army to address the physiological needs of hundreds of thousands of soldiers. Also known as "Paradise in Service" or 831. With the improvement of bilateral relations in 1990, Taiwan reduced its military power and the legislature considered it a violation of the human rights of women. Ministry of Defense decided to withdraw 'Special Tea House'." The government officially identified these spaces as violating women's human rights. But, The director defines the women there as 'sex workers'. These views have hidden the history of women in 'Special tea House' and even politically removed the 'comfort women' history of Japanese colonialism.

Key words: "Special Tea House", "Paradise in Service", The Politics, Reproduce woman, Reproduce space

이 논문은 2018년 1월 15일에 접수되어 2018년 2월 1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8년 2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